

신항 · 군산항 조화로운 발전 기대 맞춤형 복지정책 정착 앞장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발대식 개최

군산시가 군산새만금 신항(이하 신항) 개발 촉진과 발전을 위해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는 27일 군산 라마다호텔 갈라홀에서 신항의 개발 촉진과 연계한 발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정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항만·물류 분야 교수 및 전문가 항만관련 기관 및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김민영 교수와 군산항발전협의회 고병수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했

다.

위원회는 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 발전에 관한 사항 신항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을 통해 최근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신항의 정체성 확립과 군산시 귀속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등 군산시의 항만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항 조성 과정과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에 대한 군산의 입장 표명과 함께 새만금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항



만·물류·해운 분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신항의 관할권 쟁취와 올바른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과 자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고병수 공동위원장은 "신항의 군산시 귀속은 물론 신항과 군산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내실화 최선

군산시가 14개 복지분야에 걸쳐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총 14개 복지분야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및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 도래 및 매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득 보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으로 복지급여에 대한 신청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22년 14,200여건, 2023년 3월 현재 2,085건 처리하였고, 그중 1,412건이 적합으로 처리되어 사회보장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됐다.

복지정책과 통합조사체계는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별 신청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각 사업부서로 연계해 결정 및 지원이 되도록 통합조사업무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을 확보하고,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처리된 가구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한 공적·민간지원 연계,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부양가족·기피 등 가족관계 해체 및 실질적인 위기가 구 누락방지를 위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에 143건을 적합 처리하여 복지행정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관내 취약계층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통합조사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군산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공무원 보험 · 공제가입 의무화 규정'

박철원 익산시의회 발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직직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업무 수행 시

이와 함께 같은 회기중에 박 의원은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열화상화재감지기 등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전기차 보급이 10배 정도 증가하면서 관련 전기차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충전 중 사고가 20배 폭증하면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어 충전소 화재 예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충전소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기 관리와 화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이와 함께 같은 회기중에 박 의원은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열화상화재감지기 등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전기차 보급이 10배 정도 증가하면서 관련 전기차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충전 중 사고가 20배 폭증하면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어 충전소 화재 예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충전소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기 관리와 화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식목일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

익산시가 지역 곳곳에 나무를 식재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7일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해 옹포면 입점리 산56번지 일원에서 정현울 시장, 시의회 의원, 각 기관·단체, 시민과 공무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

고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재 장소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일원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5천㎡ 부지에 예기몽백나무와 영산홍, 수국 등 1천500그루를 식재했다.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은 합라산 국유림 62ha에 150억원을 투입해 숲속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익산시와 서부지방산림청이 함께 주



관하고 있다.

시는 매년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식재 후 2~3년간) 등 패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맑은 군산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맑은 군산 추진단(위원장 정동원)'이 2023년 제2차 회의를 갖고 군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맑은 군산 추진단은 지난 24일 군산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나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혁과 연고주의 및 청탁 배제 등 의지를 소속 직원들에게 전명하는 등 위에서부터 청렴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할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 의무교육 이수 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 소극행정 정은 실질적 개선으로 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홍보할 것, 시 홈페이지

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군산시 반부패 활동을 쉽게 찾아보고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 개최된 2023년 1차 맑은 군산 추진단 회의 제안으로 추진했던 '익명토론포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와 군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사례 공모전'에서 1차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안건에 대한 2차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3개의 청렴사책을 최종 선정하였다.

맑은군산추진단 정동원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청렴도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위직의 역할과 취약분야 개선 노력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종 실시계획이 발표되는 5월까지의 청렴 실천 활동과 더불어 시책 발굴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군산시 옥산면 외리마을과 서수면 신장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을 정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공모는 농촌 취약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해안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옥산면 외리마을과 서수면 성자마을로 슬레이트 지붕과 노후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마을 안길 협소해 차량 통행 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마을당 cubic 15억원 시비 5억원 총 20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을 추진한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익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한다.

시는 농촌의 오래된 주택 개량 시 소요 비용에 대한 용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37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주민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저금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원 내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용자를 지원한다.

읍, 면 지역 또는 동 지역 중 농촌지역만 신청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